

금요 양성 2월 6일 (단위형제회와 나누시오)

권고에 집중 (권고 7과 8)

<https://franciscantradition.org/francis-of-assisi-early-documents/the-saint/writings-of-francis/the-undated-writings/the-admonitions/148-fa-ed-1-page-132>

[7. 지식에 선행(善行)이 뒤따라야 합니다]

¹사도가 말합니다. “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.” ²고린 3:6

²사람들 중에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또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줄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다만 말마디만을 배우기를 열망하는 이들은 문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.

³그리고 거룩한 문자의 영을 따르기를 원치 않고 말마디만을 배우기를 열망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를 열망하는 수도자들은 문자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.

⁴ 그리고 알고 있는 문자나 알고 싶어 하는 모든 문자를 육신의 것으로 돌리지 않고, 오히려 모든 선을 소유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주 하느님께 말과 모범으로 돌려드리는 사람들은 거룩한 문자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.

[8. 시기의 죄를 피할 것입니다]

¹ “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‘예수님은 주님이시다’¹고린도 12,3라고 할 수 없습니다. ²또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.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”²로마 3,12

³ 따라서 누구든지 주님께서 자기 형제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선을 보고 그 형제를 시기하면, 모든 선을 말씀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지극히 높으신 분 자신을 시기하는 것이기에 하느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. ³마태 20,15

토론이나 저널 쓰기를 위한 질문들

+ 오소서, 성령님! 제가 권고 7을 읽을 때에 저의 정신과 마음을 열어주소서.

- 법의 정신 (법의 의도)으로 생각하지 않고 법의 글자 (글자 그대로)를 적용하게 될 때 어떻게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까?
- 성서에서 영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
- “문자”와 “영”이 재속 프란치스칸인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보기들을 들어 보시오.

+ 권고 8 –오소서, 성령님! 제가 권고 8을 읽을 때에 저의 정신과 마음을 열어주소서.

- 먼저, 가톨릭 교리에서 죄스러운 질투(부러워함)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 보시오.
https://www.vatican.va/archive/ENG0015/_P8U.HTM

한국 가톨릭 교회 교리서 : <https://cbck.or.kr/Documents/Catechism/Read/2538>

-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볼 때, 질투의 죄를 피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?
- 성령께서 자신에게 준 재능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. 이 재능을 자신의 영성 생활, 가족 생활, 형제회안에서의 생활에 어떻게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까?